

광주·전남 경제 ‘3중 먹구름’

활력 시들 - 금호타이어 공장 휴무 ·기아차 생산량 14.4% ↓
수출 부진 - 자동차·타이어·가전 등 주력산업 수출물량 줄어
고용 악화 - 청년실업 심각 ... 지자체 일자리 창출 공약 무색

생산이 부진하고 수출은 줄어드는데,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3중(重) 먹구름이 광주·전남 지역 경제를 덮치고 있다.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활력 잃어가는 산업현장=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이달 23일부터 사흘간 광주 공장 가동을 멈춘다. 곡성 공장도 5일 일정으로 타이어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에도 6일간 광주·곡성 공장 가동을 멈춰세웠다. 영업오더(주문) 대량 축소로 일시적인 휴무에 들어간 것으로, 경기 침체와 자동차 산업 경쟁이 심화된 때문이다. 지난해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차질을 빚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금호타이어의 지난달 국내 공장가동률은 66.8%에 불과했고 지난 9월까지도 77.5%에 머물렀다. 금호타이어 노조측은 정상 가동률을 90%로 보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올 9월까지 생산량은 32만72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8만2130대)에 견줘 14.4%나 줄었다. 타이어·자동차는 광주지역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자칫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 현장의 활력 저하는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9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

비 17.8%나 줄었다. 자동차(-25.6%), 고무 및 플라스틱(-26.0%) 등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부진한 수출=5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출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107억58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도 같은 기간(112억8600만달러)에 비해 5억2800만달러 감소했다. 최근 5년 간(1~9월) 수출 실적을 비교할 경우 ▲2017년 112억8600만달러 ▲2016년 108억900만달러 ▲2015년 117억1300만달러 ▲2014년 118억9700만달러 등으로 가장 낮다. 이대로라면 올 해 광주 수출 증가율은 감소세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무역협회 안팎의 분석이다.

광주의 수출은 2014년 2.5% 성장한 뒤 2015년 -5.9%→2016년 -4.0%로 꺾였다가 지난해 1.7%로 반등했었다.

지난 3분기 광주지역 수출은 35억84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40억1000만달러)에 견줘 10.6% 감소했다. 주력 업종인 자동차·타이어·냉장고 수출 물량이 모두 줄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자동차는 북미 수출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가 줄어든 12억1600만달러에 그쳤다. 냉장고도 미국(-15.8%)을 비롯한 호주(-9.1%), 캐나다(-50.0%) 등 경쟁 심화에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나 떨어졌다. 타이어도 전

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1.6%나 줄었다.

향후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 경기 요인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지역 경제계 시각이다.

◇일자리도 사라져=기업들이 수출 부진 등으로 생산을 줄이다보니 고용 확대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광주지역 실업률은 3.7%로, 전년도 같은 기간(2.9%)에 견줘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해를 제외하면 광주 실업률은 지난 2016년 이후 2월(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 3분기 실업률도 3.9%로 전년 동기(2.9%)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도 올 3분기의 경우 8.5%로 전년 동기(7.7%)보다 0.8%포인트 뛰었다.

경기 침체에 민감한 영세 도소매·숙박·음식점 일자리도 급속히 줄고 있다. 도소매·음식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1년 전인 3분기(16만9000명)에 비해 1만9000명이나 줄어 15만명에 불과했다. 올해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을 기업 유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검기 광주시의회의원이 공개한 '광주 투자유치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 6곳, 2017년 6개 기업에 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고작 2곳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검토중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광주시 공약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촌 막바지 공사 5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는 내년 대회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남부대학교국제수영장 등지에서 펼쳐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광주 시민단체가 나섰다

오늘 울산 현대차 노조 방문
현대차 광주 투자 설득 나서
추진단 8일 현대차와 협상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현대차 노조, 민주노총의 반발을 무마하고 지역노동계와의 세부 사항 조율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주 중 현대차와 협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역노동계, 현대차와 협상하고 투자유치지원단 회의를 갖는 등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6일 울산의 현대차 노조를 방문키로 해 주목된다.

광주시는 5일 "지역노동계를 대표한 윤종해 한국노동총동맹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 면담에 이어 7일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2차 회의의 그리고 8일엔 현대차와의 협약서 수정 논의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동의한 지역노동계와 세부 사항을 먼저 조율한 뒤 이를 투자유치추진단에서 논의하고 현대차와의 최종 담판을 하겠다는 의의다. 예상치 못한 물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협상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이번주 내 협약 체결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본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16명이 6일 울산 현대차 노조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노동계와 현대차 노조의 물밑 논의 끝에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시민단체들은 광주지역의 열악한 경제 여건, 현대차와 광주시의 합작투자의 의미 등을 설명하며 현대차 노조에 양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장"이라며 "이번주를 지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모두에게 팽배한 만큼 마지막 난관들을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과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제고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정찬주 유럽 예술기행
- 피사의 사탑도 언젠가는 쏜으로 ▶18면
금호고 출신 나상호·김정민
- 축구 국가대표 '벤투호' 승선 ▶20면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이 들어 보일까요?
주름, 기미, 잡티는 쉽게 기릴 수 있지만, 힘 없이 처진 얼굴탄력은 숨길 수 없죠
뿌리부터 일까지 인삼에너지를 담은 캡슐에센스가 약해진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는 자음생에센스-
이제, 시간의 흐름과 외부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Deductive Object © Kimsooja Studio LLC
*설화수 플레그스킨스트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플레그스킨스트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